

2월24일

[USD/KRW]

USD/KRW 예상 : 1432~1442원
NDF 증가 : 1435.75 (Swap point : -2.15, 1437.90원)

- (금일 전망) 금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강달러 흐름에 상승 전망. 주말 앞두고 미 경제지표 부진,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소식에 리스크오프 심리 확산되며 달러 강세. 역외 달러원은 현물환 증가 대비 상승한 1435.75원 마감. 이를 반영, 금일 서울환시 달러원은 1430원대 중후반 개장 예상되며 위험회피심리 및 지속되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에 상승 우세할 것으로 전망. 다만 금주 예정된 금통위 경계감에 따른 제한적 흐름 속 러-우 종전 협상 기대감은 상단 제한할 요인임.
- (전일 동향) 21일 달러원 환율은 미 국제금리 하락 및 글로벌달러 약세 반영, 1,433.30원 하락 출발. 장중 저가 매수세에 상승 압력 받기도 하였으나 미중 무역긴장 완화에 따른 견조한 위안화에 연동되며 상단 제한. 주간 증가 1434.3원 기록, 새벽 2시 증가 1433.7원 마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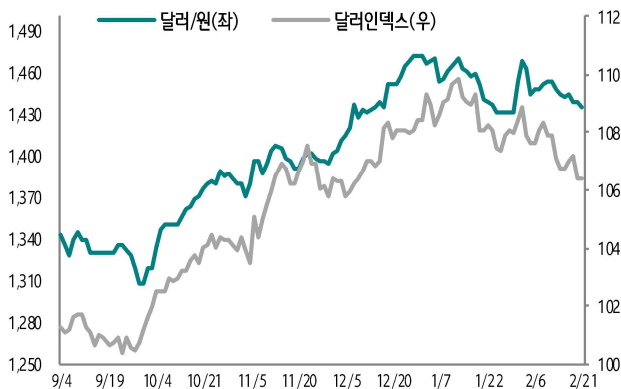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

- 글로벌 리스크오프 확산
-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소식
- 한은 금통위 금리인하 예상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기대감
- 트럼프 관세정책 경계 완화

KRW, USD Index



자료: 인포맥스

[Global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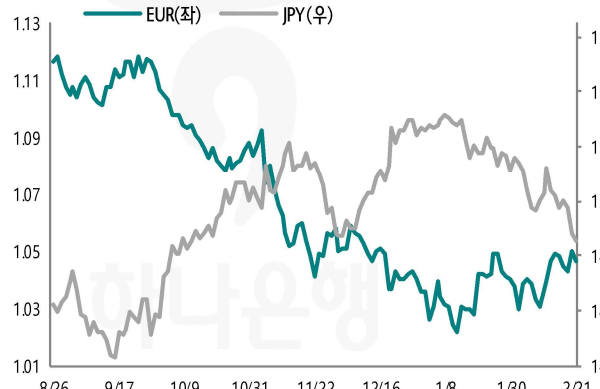
EUR/USD 예상 : 1.0410~1.0510
USD/JPY 예상 : 148.80~149.70

- (USD Index) 달러인덱스는 미국 민간 경기지표 악화에 인플레 우려까지 확산되며 위험회피심리에 강세.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까지 더해지며 달러인덱스는 106.63까지 상승.
- (EUR) 유로화는 2월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가 시장예상을 하회하자 달러 대비 약세 흐름.뉴욕장에서 미 서비스업 지표 및 소비심리지수 둔화에 약세 일부 되돌리며 유로달러 환율은 1.0461달러로 마감.
- (JPY) 엔화는 유로존과 미국의 경기지표 둔화 및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 고조에 강세. 달러엔 환율은 전장 대비 큰 폭 하락, 149.14엔으로 뉴욕장 마감.

글로벌 통화 동향

구분	증가(전일비)	재정환율(KRW)
USD Index	106.63 (+0.28)	
EUR/USD	1.0461 (-0.0042)	1500.39 (-9.82)
USD/JPY	149.14 (-0.52)	961.79 (+1.00)
USD/CNH	7.2553 (+0.0199)	197.68 (-1.04)

EUR, JPY



자료: 인포맥스

[Macro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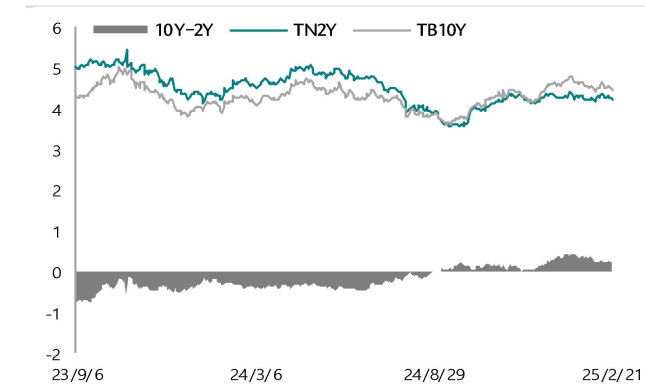
미국채 장단기 Spread(10Y-2Y) : +23.30bp (전일대비 +0.10)

- 글로벌 금융시장은 글로벌 리스크오프 심리 고조에 전반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 주말 앞두고 미국의 서비스업과 소비심리 및 주택지표까지 예상치를 하회하며 부진, 트럼프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슈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금리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견 소식까지 더해지며 위험회피심리 고조. 안전자산 선호에 미국채가격 전 구간 급등, 미국채수익률은 2년물과 10년물 모두 7bp 이상 하락. 국제 유가는 트럼프 정부가 이라크에 원유 수출을 재개하라고 압박했다는 소식에 급락. 뉴욕종시 역시 투매심리 확대에 3대 주가지수 모두 급락하였으며 전장 대비 다우지수 -1.69%, S&P -1.71%, 나스닥 -2.20% 하락 마감.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

시간	내용	예상	이전
18:00	독일 2월 IFO 기업 환경지수	101.2	100.9
19:00	유로존 1월 CPI상승률(확정) YoY	2.5%	2.4%
23:30	미국 1월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지수	0.21	0.15

US Treasury Market



자료: 인포맥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위험회피심리 고조에 따른 글로벌 강달러, 상승 전망